

시민 생생한 목소리 현장서 듣는다

우범기 전주시장, 21일 호성동 시작으로 35개 모든 동 순방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올 한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특히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문제를 직접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주시는 우범기 시장이 직접 오는 21일 호성동을 시작으로 1년 내내 35개 모든 동을 순회하며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동 순방은 민선8기 전주시정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동별로 통우회, 주민자치협의회, 동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 전주시정 비전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 실현을 위해 각 동별로 △동 현황 청취 △2025년 시정운영 방향 공유 △시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올 한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민과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기존 연두 순방과는 달리 올해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35개 동을 모두 순방하며 또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소통에 중점을 둔 연중순방으로 추

진할 방침이다.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되며, 전주 발전과 각 동별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곧바로 설명하고 이후 해당부서에

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검토 결과를 동 순방 참석자들에게 전달·공유하게 된다.

단순한 사안은 즉각 조치하고, 장시간 또는 많은 예산,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면 그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게 된다.

특히 시는 동 순방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문제를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 및 필요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지역별 또는 연령별, 시기별 등 원하는 민생문제를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대내외적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정국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해를 만들겠다”면서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전주대변력의 비전과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전주시민대상 수상자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전주시민대상 수상자회 간담회

남관우 전주시의회의장, 최찬욱 회장 등 30여명과 의견 나뉜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 17일 전주시민대상 수상자회(회장 최찬욱)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시민대상 수상자회 최찬욱 회장 등 역대 수상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찬욱 회장은 “시민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수

상자회는 앞으로도 교육·문화·사회봉사·체육 등 다방면으로 전주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대변자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설맞이 청소종합대책 가동

전주시, 쾌적한 명절 위해 연휴 기간 청소대책상황실 등 운영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맞이 청소종합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30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설 연휴 기간 청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후로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16~24일까지를 ‘설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불법 폐기물 등 쓰레기가 적치된 취약지의 쓰레기

를 말끔히 정리하기로 했다. 또, 동별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자생단체, 일반시민 등이 합동으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직영권역의 민원 해소물 위해 민원이 집중되는 대형폐기물 성상에 대해 대행업체를 통해 일부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청소는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전주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와 생

활 쓰레기 감량 등 시민들의 성숙한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어, 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실시해 연휴 기간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 및 각종 청소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생활 쓰레기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영 및 대행업체별로도 자체 기동처리반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시는 29~30일 이틀 동안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전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쓰레기 수거 휴

무일을 알려 가급적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고사동 영화의 거리 등 유동인구와 방문객이 많은 8곳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연휴 기간 및 쓰레기 수거 휴무일에도 가로 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설 명절 기간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설 연휴 기간 시민들께서도 음식물 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 주시고,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전주시역 23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 아동학대예방·아동 인권 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전주시역 23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미선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강사로 초청돼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공유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대응 방법 △아동 인권 보호 등에 대해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동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정소연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 인권 보장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조촌동 애향회, 400만원 상당 사랑의 쌀 전달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애향회(회장 천수만)는 지난 16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백미 10kg 100포(400만 원 상당)를 조촌동 주민센터(동장 박정향)에 전달했다.

조촌동 애향회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동 주민센터에 ‘사랑의 쌀 모으기’ 창구를 개설하고 숭선하여 백미를 기부하고 전시하며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동참한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소중한 쌀이 마련되어 이를 이웃과 나누었다.

/김옥기 기자

전주새중앙교회, 어려운 이웃 위해 백미 100포 기탁

전주새중앙교회(담임목사 홍동필)는 중화산2동(동장 김용태)을 찾아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백미 100포를 기탁했다.

전주새중앙교회는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중화산2동주민센터에 백미 100포를 기탁하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중화산2동주민센터에는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정가후원



과 함께 설명절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